

□우리학교 발전기금 모금현황과 과제

발전기금조성 '엥금 엥금'

모금 참가 교직원 치중...적극적 홍보 필요 철저한 실천의지와 투명한 기금관리 중요

구분	인원(명)	금액(원)	구성비(%)
교직원	1454	1,816,575	42.85
기업·재단	7	1,641,630	38.72
학부생	4	2,250	0.06
학생	8	2,350	0.05
계	1542	4,239,247	100.00

참여자별 기금 조성 현황(93~96.6.25까지) (단위: 천원)

21C로 가는 길목에서 대학들은 도태의 위기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에 갈림길에 서있다. 현시대에서 대학의 변화는 교육시설 확충, 연구기자재 구입, 우수교원 유치 등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풍부한 재원을 요구한다. 대학교육이 대중화되고 교육시장이 개방되면서 대학간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고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많은 대학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고려대가 장기발전 계획안을 세우고 5천억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여러가지 사업을 실시해 현재 약 3백억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다. 대학간 발전기금 조성경쟁에 불을 당긴 연세대는 현재 1천 4백여정도, 중앙대는 매년 1백억의 기금이 목표로 현재 모금액은 약 1백50억이다. 우리학교의 경우 타대학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비교해 볼때 매우 조용히 발전기금을 조성해 왔다. 93년말 총동문회에서 '개교 50주년 기념사업 후원회'를 만들면서 소박하게 시작한 우리학교의 발전기금모금은 올해 3월 개교 50주년 기념사업회 사무국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다. 현재 약 43억의 기금이 확보되었고 99년까지 1백억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적지않은 금액이지만 타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감이 있다.

이런 결과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학교의 기금조성사업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기금조성을 전담하는 부서(개교 50주년 기념사업회 사무국)가 올해 3월에야 생긴 것도 한 원인일것

지만 이미 조성된 기금조차 전산화가 되지 못했고 기금납부자의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는 등 이제까지 기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금의 사용용도를 명시하는 기금관리규정도 아직 없는 형편이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타대학에 비해 기업, 재단, 동문, 일반인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다는 것이다. 이는 반대로 교직원들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인데 이는 애교심의 향상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가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기금조성의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적극적인 홍보와 다각적인 노력으로 동문이나 학부모, 일반사회에 대해 경제발전기금의 취지와 목적을 알리고 납득시키는 작업이 시급한 것이다.

개교 50주년 기념사업회 사무국에서는 현재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위해 많은 계획

□통계로 본 도서 대출

대중소설이 주도 태백산맥 등 역사소설 인기

책을 많이 읽는 계절을 꼽으라면 사람들은 주저없이 가을을 선택한다. 지난 가을 학생들은 어떠한 책을 가장 많이 읽었을까?

이에 우리 신문은 지난 9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31일동안 서울·수원캠퍼스의 도서관 대출을 통해 학생들의 책 선호도를 알아본다.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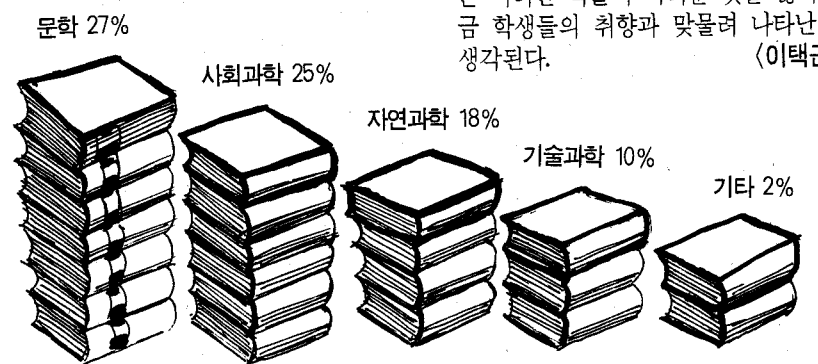
대란(야설록 저), 천통팔부(김용 저)이 두책이 지난 가을 양캠퍼스의 도서관 대출 순위 1위를 차지하였다. 대란의 경우 한달간 91회 대여됐고 천통팔부는 무려 1백69회나 대출됐다. 물론 이 책들이 시리즈서적이라 날권으로 계산할 경우 수치는 적어지겠지만 이 책들의 인기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2위 이후의 책들을 살펴보면 태백산맥을 비롯하여 역사소설 5권이 순위에 올랐으며 일반소설 3권 역사

책 2권 등이 10위권의 순위에 올랐다. 수원캠퍼스는 아리랑을 비롯하여 역사소설 3권 무협소설(천통팔부1,2) 2권 SF소설 2권 일반소설 1권, 순수과학 1권, 체육관련서적 1권 등이 순위에 올랐다.

주제별로 보았을때 서울캠퍼스의 경우 사회과학, 문학, 기술과학 순이었으며 수원캠퍼스는 문학, 응용과학, 순수과학의 순서였다. 이를 전체적으로 합산할 경우 문학이 전체 대여서적(총2만8천12권, 서울:1만3천6백60권, 수원:1만5천1백52권)중에 28%를 차지하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는 서적으로 통계되었다.

이번 통계에서 볼 때 학생들은 전공서적 이외에도 많은 책을 읽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10위권안의 책들을 살펴볼 때 학생들이 교양소설보다는 무협지등 대중소설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물론 이번 조사가 대출이라는 점에 있어서 구매와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질 수 있지만 무협소설이나 대중소설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러한 책들이 어려운 것을 싫어하는 지금 학생들의 취향과 맞물려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태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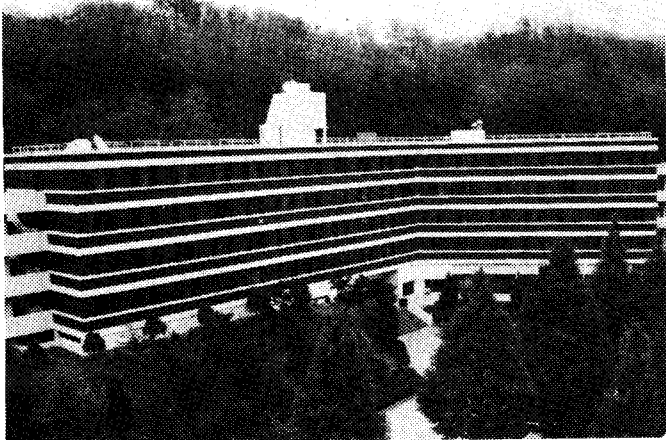
외국인 기숙사 설치 시급 시설 미비로 외국인 학생 불편

국제교류위원회는 지난 94년 우리학교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학생들은 학교생활 중 가장 불편한 점으로 숙소문제 1위를 꼽았다. 교육과정 등의 직접적인 문제가 아닌 숙소의 불편함을 지적한 것은 외국인 학생에 대한 학교의 무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재 학점교류 교환학생, 대학원 석사과정, 어학연수 등에서 약 1백여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이 중 삼의원, 애지원, 국선관 기숙사에 20여명의 학생들이 살고 있어 약 20%의 기숙사 수용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낮은 수용률은 기숙사의 절대적인 부족에서 기인한다. 현재 삼의원의 경우 외국인 학생에게 배정된 인원은 20명 정도 뿐이다.

이런 기숙사 부족에도 외국인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점도 있다. 삼의원의 경우 1실4인 기준으로 외국인 학생 1명이 들어가 생활을 해 우리나라 학생들과 문화권이 달라 불편한 점도 많다. 또한 샤워시설이나 기타 부대시설이 부족한 것도 이를 더욱 부채질 한다. 특히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나라말에 익숙하지 않아 의사소통이 매우 힘들고 기숙사 포기하고 나와 자취나 하숙생활을 택한다.

현재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개선해 정부초청외국인 장학생 중요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매년 60~1백명 씩 증원해 2천년부터는 4백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백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세대의 외국인 전용 기숙사인 '국제학사'의 모습

갖추고 있으며 비용도 월 15만 원으로 만 편이다. 연대에 약 5백여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이 중 약 50%정도가 기숙사를 이용하는 셈이다. 이 밖에도 서울대, 고대, 이대 등이 외국인 전용 기숙사를 갖춰 놓고 있다.

현재 우리학교는 1백30여개의 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형식적인 자매학교 수만

□총장 선출 개선 논의 쟁점

교협, 직원·학생 참여 불가

지난 23일 총장선출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열린 '대학발전위원회(위원장:조정원 부총장)임시회의'에서 경희학원민주단체협의회(이하 경민협, 위원장:김종원 노조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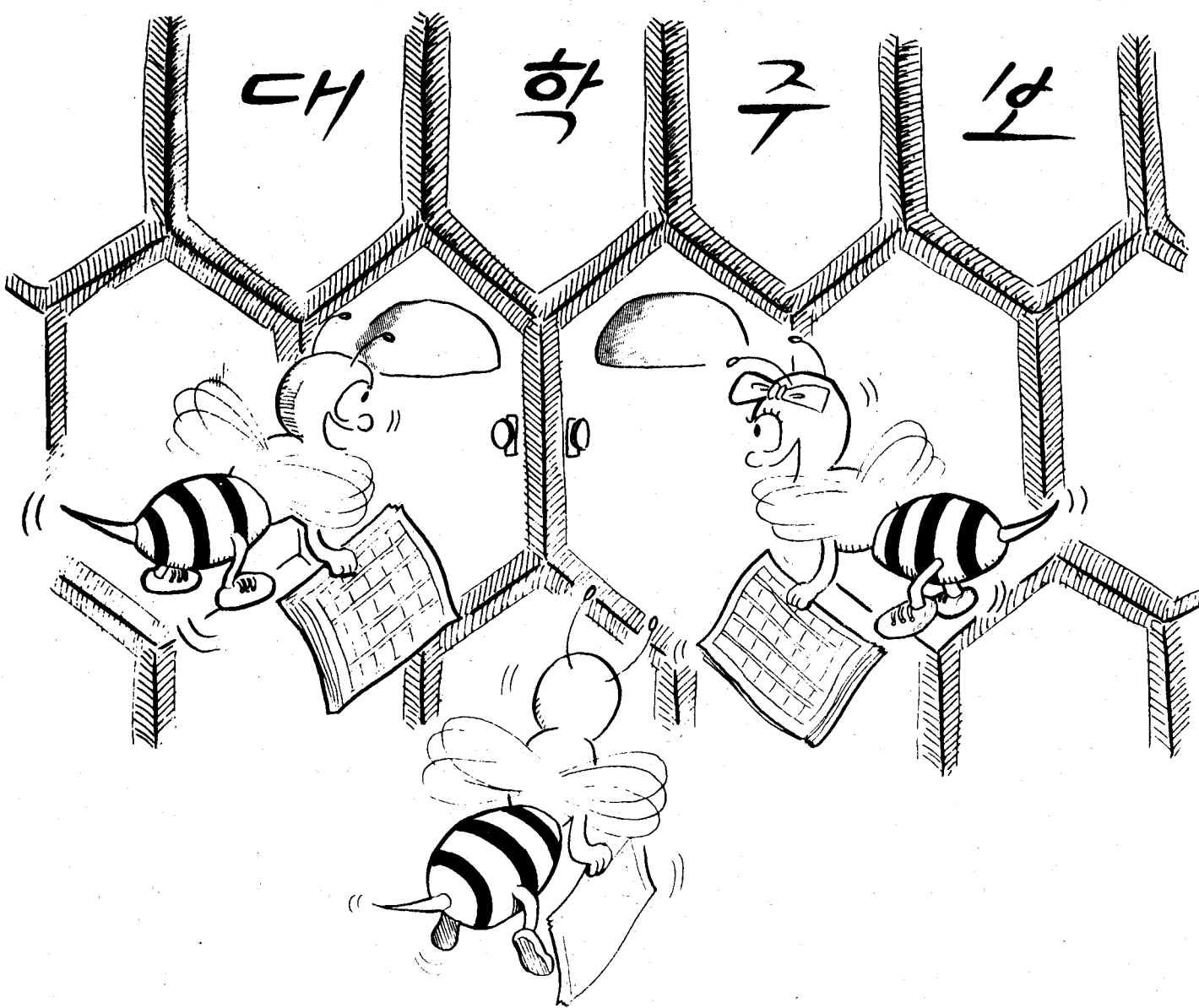
이러한 교수협의회의 입장은 사실상 경민협에서 마련한 새로운 총장선출안 수용을 정면 거부하고 현 총장선출방식을 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에 대해 노동조합과 총학생회측 학과 교수측의 총장선출에 대한 의견차로 아무런 합의점도 찾아내지 못했다.

이 자리에선 경민협이 총장선출에 대한 새로운 안인 '예비후보선정위원회' 선정한 후보자 중 전체교수와 직정인원의 직원 대표, 학부생, 대학원생 대표가 참여하는 총투표를 거쳐 선출된 1인의 총장후보를 재단이 임명, 재청하는 방식'에 대해 교수협의회의 측은 '교수들만에 의한 총장선거를 치를 것'을 고수했다.

교수협의회의측은 총장선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 때 '현행제도를 부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논의는 할 수 없다', '타학교의 경우에 나타났듯 총장직선제는 많은 부작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교수들만이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경민협측의 '학원의 구성원 총장선출참여'와 교수협의회의 '교수만 참여하는 기존의 선출방식' 교수라는 두 안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한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장선출 제도논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동욱 기자)



“여러분이 모아온 꿀로
가득 채우고자 합니다”

어떻게 글을 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곧장 대학주보사로 찾아오십시오.
당신을 반겨맞는 대학주보기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멋진 글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글씨가 예쁘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학주보는 여러분의 삶이 진솔하게 담긴 하나 하나의 생각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 학 주 보 사